

朝鮮朝後期 文學批評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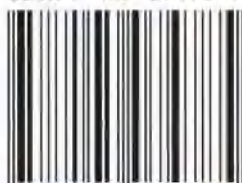


李學堂 著

민족출판사

责任编辑 金美玉
责任校对 孙 瑛
封面设计 金 一

ISBN 7-105-07478-7



9 787105 074785 >

ISBN 7-105-07478-7/I · 1612
民文(朝 182) 定价: 26.00元

이 책은 韓國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한국어표기법을 그대로 適用하여 刊行하므로 中・韓 兩國의 韓國古典文學 研究의 參考資料가 될 뿐만 아니라 敎育用 圖書로도 쓰일 수 있음을 밝혀둔다.

朝鮮朝後期 文學批評 研究

李學堂 著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朝后期文学批评研究 / 李学堂著. — 北京: 民族出版社,
2006.2

ISBN 7-105-07478-7

I. 朝… II. 李… III. ①李德懋-生平事迹-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李德懋-文学研究-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
K833.125.6②I312.06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11341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2月第1版 2006年2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16.875

字数: 280千字 定价: 26.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序

『論語』의 「述而」 편에 이런 말이 있다. “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이 말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孔子의 두 가지 기본 자세를 밝힌 것이다. 즉 첫째는 스스로 알고 노력하지 않으면 啓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알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를 가르쳐서 셋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알고 노력하고 또 하나를 가르쳐 셋을 깨닫는 제자를 둔 선생이 있다면, 이것은 孟子가 말한 바 “得天下英才而教育之”하는 人生三樂 중의 하나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선생일 것이다. 나는 成均館大學校 漢文學科에서 李學堂 博士를 지도하면서 “得天下英才而教育之”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7년 전 어느 날 李博士가 나를 찾아와 成均館大學校 漢文學科의 碩士班에 入學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적지 않게 당황했다. 朝鮮族이 아닌 漢族 중국인이 漢文學을 공부하기 위하여 韓國에 온 것을 나로서는 얼른 納得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나의 疑惑은 차츰 풀렸다. 그는 중국에서 高中을 졸업하고 北韓의 平壤에서 5년 간 遊學을 하며 한국의 문화와 學術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해를 가졌다. 이후 그의 말을 빌리면 “중국 천하를 壯遊하고 싶어서” 잠시 旅行社에 근무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韓國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다른 중국인들과 달리 碩士過程을 마칠 때까지의 學費와 生活費까지 마련해서 왔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나는 그가 참으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의 碩士學位論文을 지도하면서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그의 碩士論文은 『熱河日記』에서 朴趾源이 中國學者들과 나눈 筆談의

성격을 밝히는 내용이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를 가르치면 셋을 알아서
논문을 작성했다. 그 결과 그의 논문은 成均館大學校 東亞細亞學術
院에서 수여하는 最優秀論文賞을 받았다.

碩士學位를 取得한 후 中國側으로부터 돈과 명예가 보장되는
職責을 提案받았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다시 博士班에 들어와서 드
디어 博士學位를 취득했다. 그의 學位論文인 『李德懋의 文學批評
에 關한 研究』는 李德懋에 관한 既存의 研究에서 進一步한 獨創
적인 논문이다. 文學批評家로서의 李德懋를 새롭게 照明한 이 논문
은 韓國漢文學의 研究水準을 한 단계 높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지금 李博士는 山東大學에서 韓國文學을 가르치는 教授로 在
職中이다. 마침 學位論文을 책으로 엮어 上梓하면서 나에게 序文을
부탁하기에 흐뭇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그리고 韓愈가 「師說」에
서 “弟子不必不如師 師不必賢於弟子”라고 한 말이 새삼 實感난다.

2005년 仲秋節에 韓國에서
宋載邵 答

自序

回家的感觉真好。在秋高气爽的季节，终于结束了异国他乡长达七年的求学生涯，回到了日思梦想的祖国怀抱。回家的感觉真好。

回想七年之前，当我把出国的机票和护照签证拿到太太面前，她知道拗不过了，只好默默地为我收拾行装，连同五岁女儿的相片。三年过后，她自己带着女儿来了。从一个都不认识的韩国字母开始，克服语言障碍以后，现在已经是在读博士。女儿也能说一口标准的韩国话了，小学读完以后，接着进初中读了半年，老师同学竟然一直不知道她是外国孩子。直到为了回国，我带她专程去告别时，老师才明白过来。在韩国，只要读完小学有了名单，进初中时，学校连确认身份的手续都省去了，难怪连班主任都不晓得自己班上原来有个中国孩子。

我自己可能天生就是不安分的性格。被保送到朝鲜读了五年多的教育学本科，回国后却没有接着到大学工作，满中国跑了近十年的旅游。都三十多岁了，忽然有一天下定决心，去到韩国搞起了大部分韩国人都不愿意涉足的韩国汉文学。半路出家的人，做学术自然轻松不了。但我却并没有感到很累，原因可能是求知的热情起了作用，使我经常地陶醉于对新知识的涉猎中。二三百年来，韩国人的文化与中国同时代的文化有那么多的相似之处，尤其是文学作品，同样是使用汉文创作，只不过写的是本民族的事而已。而这些作品，虽然经过了日帝殖民统治的文化同化，以及本民族自相反目的战火焚毁，很大一部分还是被完整地保存下来。经过近数十年韩国学界的不懈努力，已经按年代顺序整理成数量庞大的文集丛刊。其作者，大都是各个朝代有名的文人学者。而在这些作品当中，有好多写的就是与中国各个朝代息息相关的内容，从对四书五经的学

习心得，到朝天燕行来到中国以后的山水游记和在皇城城隍根的耳闻目见，内容丰富多彩。而他们所接触的人物，上到皇帝和文武百官，下到普通百姓，对各个层面的人物，都作了活生生的描写。这些朝天录和燕行记的白眉，就是朴趾源(1737~1805)的《热河日记》。在朝鲜朝后期，以朴趾源为代表的知识阶层燕行中国，在亲身体验过清朝的繁荣景象以后，更加明确地提出了北学的主张，即通过学习清朝的先进文物，来改变朝鲜落后保守的现状。而其中与中国清朝文士诗书交流的痕迹，更引起了我的浓厚兴趣。然而，类似的能让人爱不释手的有价值的文集太多太多，想在其中选定一个研究方向并不是一件容易的事。

在导师的指导之下，我在广泛涉猎各个时期与中国有关的文学作品的同时，将自己的注意，更多地放在了韩国文学与中国古典文学的关联之处上。具体地说，放在了朝鲜末期以前，韩国人如何吸收中国和本民族前代文学理论，从而形成自己当代文学理论的过程中。这时候，一个同属于北学派实学俱乐部的文人进入了我的视野，他就是七十卷《青庄馆全书》的作者，有着朝鲜王朝王族血统的检书官李德懋(1741~1793)。对李德懋的认识，始自我研究朴趾源《热河日记》之时。朴的燕行，晚于李二年，而在他的作品中，不但多次提及李，对李的博学多才更是推崇备至。通过研究发现，李的诗名，得自清朝文士对其早年诗作的高度评价。当时，李和其他三位年轻的朝鲜诗人(朴齐家，柳得恭，李书九)的合集《韩客巾衍集》在清朝被刊行后，引起了大清文坛的注意。燕京文士李调元(1734~?)评价李德懋诗为四家之首：“青庄馆集，造句坚老，立格浑成，随意排铺，而无俗艳，在四家中，当推老手”。而潘庭筠(1742~?)则推李德懋诗为奇宝：“炯庵(李的雅号之一)锤字炼意，力扫凡豁，别开异境，晚宋晚明之间，应踞一席。又如火齐木难，触目都是奇宝，非寻常近玩之比”。可见李的文学成就之高。而朝鲜文坛则在高度评价李德懋文学成就的同时，更对其出众的品行、识解、博闻强记赞叹有加。朴趾源在李去世之后的《行状》中写道：“然世之论懋官者，

称其品行为第一，识解第二，博闻强记第三，文艺特第四耳。”这是当时文坛对李的公论。

研究李德懋，注意到他不仅在文学创作方面成就突出，在经学、考证学、文艺批评等方面也颇有造诣。尤其对各个朝代韩中两国的文学流派风格和代表作家多有论及，有些观点现在看来都是很有启发意义的。例如他对明代前后七子和公安派的见解，对清代性灵派重视神韵文学主张的受容，以及对朝鲜当代文坛文风形成的重视，等等。通过研究李德懋的文学批评资料，一方面可以直接了解朝鲜后期文学的概况和特征，另一方面，透过他的论述，可以间接地了解朝鲜文坛对中国各个朝代文学思想的认识和接受过程，尤其对把握朝鲜和清朝的文学交流史能起到很大作用。

在我博士论文的研究和写作过程中，我的导师韩国成均馆大学宋载邵先生和林茨泽先生、金明昊教授自始至终给予了热情指导，汉文学系的其他老师和同学们也给予了很多支持和帮助。高丽大学的李东欢教授、檀国大学的金相洪教授在论文审查过程中，提供了许多宝贵的建议，在此一并表示感谢。

这本小书，基本上是在我博士论文的基础上，略加增删而成的。由于本人水平有限，不足之处在所难免，恳请方家学友不吝赐教。

2006年 2月

李学堂写于威海玛珈山房

차 례

I. 序論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향	8
II. 李德懋의 生涯와 位相	11
1. 生涯와 白塔淸緣	11
2. 燕巖그룹 內에서의 위치	29
III. 李德懋의 著述과 批評活動	31
1. 『靑莊館全書』所在 文學批評關係資料	31
1) 詩	31
2) 文	33
2. 批評活動 — 李璡과의 論爭을 中心으로	38
1) 논쟁의 발단과 논제	41
2) 논쟁의 특색	55
3) 논쟁의 심화	57
4) 논쟁의 의미	66
IV. 李德懋의 審美意識과 批評基準	69
1. 事物認識의 態度 및 審美意識	72
1) 鳥獸草木에 對한 靜觀과 閑情	72
2) 事物에 對한 美的 感覺	83

2. 批評의 主要 基準	104
1) 儒雅	105
2) 眞	119
3) 趣와 美	138
4) 法古創新	147
V. 李德懋 文學批評의 實際	163
1. 燕巖그룹을 中心으로 한 當代文人에 對한 批評	163
2. 前代文人에 對한 批評	174
1) 陶·韓·歐·蘇	174
2) 前後七子·公安派	184
3) 李奎報와 金昌協	198
3. 詩에 對한 認識과 批評의 樣相	205
1) 시대意識에 근거한 금인意識	206
2) 각종 품격에 대한 兼容과 取舍	210
3) 師法과 獨創의 關係	215
4) '詩出性情'에 대한 '회의론'	219
4. 小說觀과 『水滸傳』考證	223
VI. 結論	243
참고문헌	249
中文提要	255

I. 序論

1. 문제제기

18~19세기 중엽까지는 문학사적으로 볼 때 남·북한에서 '조선 후기' 또는 '이조후기'로 분기시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영·정조 시대는 흔히 조선의 '문예부흥기'로 간주되기도 하고 '증세의 해체기' 또는 '근대로의 이행기'로 파악되기도 한다. 북학파라는 명칭은, 그들이 청나라의 문물과 기술에 대하여 개방적인 안목을 갖자고 주장하였기에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학파의 구성원에 대한 고찰과 그 실제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일종의 학문경향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본 논문에는 燕巖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학경향의 문인들을 가리켜 연암그룹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그들은 갖가지 풍격의 시와 부, 다양한 산문과 잡문으로 영·정조의 문단을 화려하게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산수진경과 화조인물 등 그림의 창작과 향유로 高度의 예술 소양과 성취를 보여주었다. 또한 천문·지리·수학·박물·의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 이 시기 문예부흥의 주력 문인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연암그룹은 朴趾源과 그 주변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문학적 경향을 고찰해보면 각기 다른 특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시를 별로 많이 짓지 않은 대신에 傳과 紀行文 등 산문의 창작에서 많은 성과를 낳았고 朴齊家와 柳得恭, 李書九 등은 시의 창작에 훨씬 능숙하여 우수한 시작품을 많이 남겼다. 李德憲는 시뿐만 아니라 산문과 잡문의 창작에도 성취가 높았지만, 策과 같은 政論文에는 별 솜씨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특히 儒雅多識과

博學多聞으로 연암그룹 내부에서 더욱 유명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질을 가진 천재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연암그룹은 조선후기의 문단을 더욱 찬란하게 빛낼 수 있었다.

한 시대의 문단은 문학의 창작자(공급자)와 감상자(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작자와 감상자 이 양자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문학비평가라고 할 수 있다. 문학비평가는 문학을 직접 창작하기도 하지만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지식으로 남이 창작한 작품을 평가하고 이론화시켜 감상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말하자면 문학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문학비평가는 미학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특징과 득실, 창작 수법의 고하, 用詞와 用典의 淵源 등을 일목요연하게 밝혀낼 줄을 알아야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학비평가는 문학평론가라는 전문 직책을 가질 정도로 직업화되어 있지만 근대 이전에는 전문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창작자와 감상자 중에서 안목이 있는 사람이 겸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비평가로서의 역할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빠질 수 없는 문학전문가로서 그 시대의 문학적인 수준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시대의 문학경향과 문학성고가 그 시대의 고유한 특징을 띠고 있듯이 문학비평도 각 시대의 특색을 띠고 있는 것이고 문학비평의 성과도 그 시대 문학성과 중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비평가로서의 이덕무는 반드시 연암그룹 고유의 문풍을 띠고 있으면서도 한 그룹의 구성원으로 그 구성 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연암그룹 전체의 문학 성취를 수시로 총괄할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장단을 공정하게 장려·비판하여 그 예술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덕무는 연암그룹에서, 나아가 조선후기 당대의 문풍, 더 나아가 고금내외의 문학성고에 대하여서도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

행하였고 문학비평 방면에서의 성과도 많이 남겨 주었다.

지금까지 이덕무에 대해서는, 시인으로서의 성과와 연암그룹 구성원으로서의 실학관·문학론이 많이 발굴되고 천명되었지만, 연암그룹 내에서의 문학비평가, 조선 후기의 문학비평가로서의 문학사적인 지위는 아직까지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이덕무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 이덕무의 문학론과 시관, 묘사 기법 등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아 진행한 전문적인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덕무에 관한 전문 연구들은, 그의 실학사상과 결부하여 시와 산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朝鮮人으로서 ‘朝鮮詩’를 써야 한다는 주체의식과 실학과의 학문관에 관한 연구¹⁾, 그의 문학론 전반에 관한 탐구²⁾, 題畫詩를 비롯한 그의 작시 방법과 묘사성, 특히 그의 시작품에 나타난 회화성, 그리고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한 시의 특색으로서의 서정성³⁾, 『淸脾錄』

1) 이성무, 『李德懋의 實學思想』, 『향토서울』 31호,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1967.

오수경, 『雅亭 李德懋의 詩論과 朝鮮詩의 性格』, 『한국한문학연구』 9·10합집, 1987.

윤기홍, 『朴趾源과 後期四家의 文學思想研究』, 연세대 박사논문, 1988.

李和炯, 『炯菴 李德懋의 文學論-中心意識을 中心으로-』, 『韓國思想論文選集』 147, 불함문화사, 2000.

2) 崔古容, 『李德懋 文學研究』, 『韓國思想論文選集』 147, 불함문화사, 2000.

김영동, 『이덕무의 문학관』, 『조선 후기문학의 양상』, 이화문화사, 2001.

부은아, 『이덕무 문학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0.

3) 鄭良婉, 『李德懋 詩의 繪畫性에 대한 小考』, 『韓國漢文學研究』 3·4합집, 한국한문학회, 1978-1979.

鄭良婉, 『朝鮮朝 後期 漢詩研究』, 성신여대출판부, 1983.

최숙인, 『朝鮮後期 文學에 나타난 繪畫性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을 비롯한 詩話와 詩批評에 대한 연구⁴⁾, 傳·書 등 산문에 대한 연구⁵⁾, 「입연기」 등 작품을 통하여 보여준 이덕무의 중국관, 청나라 문단과의 교류 양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들⁶⁾, 「蜻蛉國誌」 등 작품에서 보여준 그의 일본관을 논의한 논문⁷⁾ 등은 이덕무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이다. 이 연구들은 이덕무의 삶과 사상, 시문학, 산문문학, 세계관과 세계의식 등의 실체에 접근하는 작업과 시도들이다. 그 외에 이덕무가 청나라 문단과 교류하여 청나라 문인들의 문학사상을 수용한 양상을 검토한 논문도 나왔다.⁸⁾

그 다음은 연암그룹, 또는 조선후기 문단의 다른 인물을 주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하되 이덕무를 측면적으로 언급하거나 그의 비평 자료를 인용하여 진행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덕무를 거론하는 관련 논문을 보면, 연암 박지원, 초정 박제가, 영재 유득공, 강산 이서구, 다산 정약용 등을 연구한 논문,⁹⁾ 그리고 한시 사가를 함께 다루는

- 4) 金泳, 「청비록의 시 비평양상」, 『조선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송재소·김명호 외, 창작과비평사, 1983.
- 5) 朴暎美, 「李德懋의 傳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4.
趙南彬, 「北學派의 散文精神과 小品體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1998.
李鐘周, 「北學派 散文研究」,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0.
權政媛, 「靑莊館 李德懋의 尺牘研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6.
- 6) 崔博光, 「李德懋의 中國體驗과 學問觀」, 『韓國思想論文選集』 147, 불함문화사, 2000.
李慧淳, 「李德懋의 入燕記 小考」, 『淵民李家源先生七秩頌壽紀念論叢』, 정음사, 1987.
- 7) 河宇鳳, 「李德懋의 日本觀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제17집, 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8) 이경수, 「李德懋의 清代詩 受容」, 27집, 강원대학교, 1989.
이경수, 「漢詩四家의 清代詩 受用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
- 9) 송재소, 「한시미학과 역사적 진실」, 창작과비평사, 2001.
송재소, 『다산시연구』, 창작과비평사, 1986.
송재소·김명호 외, 『이조후기 한문학의 재조명』, 창작과비평사, 1983.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이동환, 「조선후기 '천기론'의 개념 및 미학이념과 그 문예사상사적 연관」, 『한국한문학연구』 제28집, 2001.

논문¹⁰⁾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이덕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덕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논문이 아니므로 그의 문학비평 방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거나 제시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李和炯은 이덕무를 투철한 유학자 정신을 지닌 선비로 보고 그의 인간성의 고찰에서 출발하여 그의 문학의식이나 작가정신과 연결시켰다. 그는 이덕무의 문학의식의 방향에 있어 우선 주체적 인격의 구현을 위해 작가의 도덕성 주장과 소설무용론을 제기하였다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언어와 문체 두 측면에서 이덕무 문학의 독자성을 발견한다. 이덕무는 인간의 도덕적인 삶과 문학의 진실을 조화시킴으로써 민족문학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中正意識을 볼 수 있고 ‘今猶古 古猶今’의 창신론을 그의 문학 창신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덕무의 작가 정신으로는 그의 인본주의와 친진성 지향을 들어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¹¹⁾

金二貞은 이덕무의 소설 배척론을 현실적 맥락과 결부시켜 그의 인식양상을 규명하려고 했다. 우선 이덕무의 소설론의 형성 배경이 되는 현실 대응방향과 문학론의 문제의식에서 그의 소설론을 당대 사회에서 소외된 지식인으로서의 현실에 대한 부단한 탐구와 모순 해결 방법의 탐색으로 간주하였다. 구체적으로 ‘연의소설’을 배척한 것인데, 史와는 반대되는 僞로서의 허구 때문에 배척한 것이 뚜렷하게 보

김상홍, 『조선조 한문학의 조명』, 이회문화사, 2003.

김상홍, 『한국한시론과 실학과문학』, 계명문화사, 1989.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0.

김윤조, 『영재 유득공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6.

정일남, 『박제가의 시론과 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2.

남재철, 『이서구 시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10) 李庚秀, 『한시사가의 청대 시 수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윤기홍, 『박지원과 후기사가의 문학사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9.

김월성, 『조선후기 신문론 수용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04.

11) 이희형, 『아정 이덕무의 문학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3.

여진다고 하였다.¹²⁾

이덕무의 시화와 시평, 평어에 관한 연구도 일정한 성과를 보게 되었다. 김영이 「청비록의 시 비평양상」에서 『청비록』에 나타난 시 비평을 검토하여 이덕무 시비평의 연구의 장을 본격적으로 연 후,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 왔다. 金學敦은 이덕무의 시화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기론과 비평세계를 검토했다. 실학적 분위기의 시대조류 속에서 사실적이고 문예적인 자아각성과 문학의 질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또 독자적이고 참신성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문학관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그의 시 비평의식은 조선적인 것에 대한 자각과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지닌 주체적 세계관을 소유했다고 보았다. 또 公平博雅함에서 출발하여 한·중·일 시의 비평에 있어서 외적인 면을 배제하고 작품 내적인 것에 치중하는 비평관을 가졌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평어로서는 격조에 관한 평어, 내용에 관한 평어, 수사에 관한 평어 기타 평어로 나누어서 고찰함으로써 그의 독자적인 비평세계를 보여주었다. 시 비평 방식으로는 원류비평, 비교비평, 인상비평 등이 있었다는 것도 파악되었다.¹³⁾

이덕무의 시평에 관한 연구는 이수진의 논문¹⁴⁾을 들 수 있는데, 이덕무의 문학관과 시관을 바탕으로 그의 시평의식을 고찰한 것이다. 이덕무는 평소 시 모으기를 활발히 하였으며, 나름대로 변정, 소해, 품평, 기사의 방법으로 시평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성실했으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시평은 논리의 적용보다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남이 이미 해놓은 시평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의 자신감을 나타낸다. 시는 결국 성정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시와 시인을 연결시켜 시평을 했다는 것, 시인이 즐겨 쓰는 시어나 시구 또는 시 전체의 분위기에 대해 검토하여 그 시인의 대표적 시풍으로 발전하는 것 등 시평 양상을 알아

12) 전이정, 『청장관 이덕무의 소설론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1.

13) 김학돈, 「이덕무의 시화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93.

14) 이수진, 「이덕무의 시평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1994.